

#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글 · 최현정 chhjung@paran.com

우리의 세계는 언제나 재난과 범죄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지구상의 재난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걱정하고 무력해합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기도, 또 안심하기도 합니다. 잔인한 범죄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참기 힘든 강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역시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문단속을 점검합니다.

## 사회의 부조리와 개인의 정신병리

한참, 어느 살인마의 이야기로 우리 사회가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살해당한 피해자보다 살해한 살인마가 우리의 관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모든 불안과 분노를 살인마를 향해 던졌지요. 특히나 범죄 행위를 정신병리로 설명하는 서양 의학 모델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살인마가 어떠한 인격적 결함을 지니는지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가 왜 그토록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는지를 너무도 궁금해 하는 우리의 욕구를 꽤나 만족시켜주었습니다.

폭력과 고통을 개인의 병리로 해석하는 것은 의학적 모델 안에서는 타당합니다. 의학 모델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혹은 ‘사이코패스’ 이지요. 그러한 분류는 분명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설명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믿으면서, 폭력 행위의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합니다. 그 설명은 우리를 상당히 안심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하기를 계속하지요. 개인의 병리가 잔혹한 범죄를 야기했다면 그러한 개인을 벌하고 피하면 그만 아니까요.

그러나 그 사이에 개개인 서로를 향한 우리의 불신은 늘어납니다.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나 사이코패스일지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뒀야 하므로. **반면에 우리는 사회가 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길러냈다는 측면은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습니다.** 한 사이코패스 개인으로 관심의 초점이 축소되면서, 사이코패스를 길러내는 환경의 부당함과 위험성은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가 사이코패스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사이코패스로 만들어낸 현실입니다만, 그러한 현실을 인정 하기란 우리 자신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일까요?

## 세상은 언제나 정의롭다는 위태로운 믿음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위험하고 부조리하다는 생각은 우리의 주관적 안녕감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우리의 주관적 안녕감을 건드린 이 살인마를 향해 더욱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평화로운 세상을 뒤흔든 그를 응징해야 마땅하므로, 그의 부도덕한 이름과 사진을 온 세상에 알리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통 그의 이름과 사진으로 도배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유족이나 가해자의 주변인들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응징하려는 우리의 욕구 안에서 피해 당사자의 입장과 사회 정의에 대한 고민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분노의 기원에 놓인 것은 더 이상 피해자를 향한 연민이 아닙니다. 너무도 참혹했던 세상의 일면을 우리는 이미 잊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당하기 짝이 없던 세상을 말입니다.

세상은 오로지 정의로우며, 믿지 못할 것은 사람이라는 신념에 집착하게 될 때, 세상이 보다 정의로워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존 조스트라는 심리학자는 세상은 원래 정의롭다는 경직된 신념을 지나치게 고수하다보면 엄연한 불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눈감게 되고, 따라서 이 경직된 신념자체가 결국에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 체계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 ‘아니오’라고 외쳐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옆의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도 ‘아니오’라고 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외쳐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입니다. 또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믿어야 하니까, '아니오' 라고 외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폭력을 가시화하면서 '참을 수 있는 폭력' 이라는 것이 결정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난과 범죄 폭력으로 이 세상을 떠들썩할 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는 폭력의 유형이 있다는 말입니다.

### 은폐되는 국가의 폭력, 외면당한 지원

사람은 자연의 무지막지한 힘에 의해 고통을 얻고 사람에게서 고통을 얻습니다. 사람은 권력에 의해, 체제에 의해, 국가에 의해 고통을 얻습니다. 지난 해 임진강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희생된 여섯 분의 영정 사진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마땅히 알려지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대책을 모색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오버랩 되었던 것은 당시에 뉴스가 외면했던 용산 화재참사 희생자 여섯 분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뉴스는 영정 사진을 골라서 보도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서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권이 저지른 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국가는 역사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폭력을 폭력으로 인정하고 마땅한 지원 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실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체제에 의한 폭력은 참을 수 있는 것, 불가피 한 것, 혹은 오직 운이 없었던 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없이 해마다 찾아오는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고통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만약 내가 국가폭력의 직접적 피해로부터 다행히 빚겨갈 수 있었더라면, 국가폭력으로 침해당한 자의 고통 앞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알아차리는 경험은 소중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는 건국 초기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마을의 흔적과 학살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곳에 서있으면 참혹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 몹시도 두렵고 침통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 침통함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두려움에 놓인 똑같은 사람으로서 충분히 슬퍼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극적인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애써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참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건은 사람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

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느낌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고통을 축소화하고 정당화하는 논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충분히 느끼고, 우리의 느낌을 자각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에



제주도 첫알오름 학살터

앞선다고 봅니다. 우리는 슬프고 두렵지만, 슬프지 않아야 하고 두렵지 않아야 한다는데 집착한 나머지 슬픔이나 두려움을 빨리 없애버리기 위한 논리들을 만들어내고자 애씁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들의 고통과 죽음이 반공주의니 민족주의니 발전주의니 하는 관념의 철창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슬퍼합시다. 그러나 그 슬픔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자꾸 애쓰지 맙시다. 두려워합시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압도 되지는 맙시다.

### '숭고한 희생' 논리는 국가 폭력을 정당화해

만약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자각하지 않는다면 슬픔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희생에 감사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편안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그 의미를 성급하게 왜곡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다카하시 데쓰야는 '숭고한 희생의 논리' 는 희생 정당화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항상 요구했지만, 이제는 그것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해 많은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장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데쓰야는 '나라를 지키거나', '민주주의 발전' 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고통을 '숭고한 희생' 으로



다카하시 데쓰야의 저서

포장하는 순간 국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고통이 정당화되고 만다고 지적합니다. 전쟁이나 독재정권의 폭력에 의한 피해를 영웅들의 고결한 희생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곧 전쟁이나 국가폭력의 실체를 은폐시키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기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

**‘당신의 희생으로 오늘날이 있다’고 감사하는 우리 마음을 점점해 봅시다.** 어쩌면 그 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슬픔과 무력감이 자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안하다면 그 이유는 당신의 용기와 실천에 의해서이지, 당신

의 죽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죽음은 슬픔의 대상이지 감사의 대상이 아니며, 그러한 당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국가 폭력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희생은 분명 있어서는 안 되는 비통한 일입니다. 체제의 보호를 위해 혹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수많은 개인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것, 필요한 것, 혹은 자랑스러운 무엇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체제와 그 민주주의가 과연 어떠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인가를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데쓰야가 주장하듯이, 우리는 모든 선택에 앞서 개인이 희생될지 모를 가능성을 뿌리 뽑기 위한 강한 의지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슬픔을 왜곡하지 않고 진정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강한 의지를 품을 수 있는 힘 또한 우리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 힘이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와 희망에 실체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지*

---

글 최현정 |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임상심리학자. 역서에 주디스 허먼의 『트라우마』, 피터 엘사스의 『고문 폭력 생존자 심리치료』 등이 있다.